

신뢰와 관계로 다시 세워지는 삶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행일 2025년 12월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한국사회가치평가

## Contents

### 1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04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08

더 가까이, 더 깊이: 지역별 권역센터 설립추진

더 많이, 더 넓게: 플랫폼 접근성과 비대면 소통 기반 강화

###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1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1. 권역센터 지역 지원대상 및 맞춤형 지원 대폭 확대

임팩트 2. 지원체계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원자 직접 발굴 확대

임팩트 3.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플랫폼(CRM) 개발을 통한 사례대응 효율성 향상

임팩트 4.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시민인식 확산

임팩트 5.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임팩트 6. 수용자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보

###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29

# 1 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움은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아동복지 전문단체입니다. 아동중심 관점으로 수용자 자녀 문제에 접근합니다.

## 세움이 걸어온 길

### 아동중심의 관점으로 수용자 자녀 문제에 접근합니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아동복지 전문단체입니다.

## 미션과 비전

수용자 자녀 한 명의 아이가堂堂하게 사는 세상

미션

수용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견하도록 돕고 연결하는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현한다

비전2030



전략목표



## 주요 사업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연간 5만 5천여 명으로, 이는 국내 전체 19세 미만 인구의 0.5%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녀끼리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이 같은 돌봄 부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세움의 솔루션

#### 수용자 자녀의 당당한 생활을 위한 경제적·심리정서적 지원사업

- **성장지원비 지원**: 부모의 갑작스런 수감으로 수용자 자녀들은 빈곤아동보다 5.5배 더 경제적 빈곤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움은 부모가 수감된 이후 교도소로부터 연계받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맞춤형 개별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돈, 교육비, 긴급 생계비, 의료비, 생일 선물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수용자 자녀가 안전히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 **교도소 양육 유아지원**: 교도소 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생후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년 약 10~12명의 1개월~18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수감된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 살고 있습니다. 세움은 교도소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들이 엄마 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옷, 이유식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심리정서적 지원** ‘세움ON(溫)’: 부모의 수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수용자 자녀와 그 가정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및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수용자 자녀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용자 자녀를 향한 세상의 편견을 개선하는 지원사업

- **세움 파트너 활동**: 세움 멘토단과 수용자 자녀를 1:1 매칭해 월 1-2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관계맺기를 돕고, 타인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지원하여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찾아가는 멘토링/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기의 체험과 활동은 자아존중감, 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세움은 부모의 수감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역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을 지원합니다.
- **면회 지원**: 세움은 2017년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의 교도소가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 2023년 4월 출범한 세움 법률지원 변호사단은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법률 전화상담, 무료 변론 등을 지원합니다.

#### 수용자 자녀의 주도적인 삶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 **통합지원센터 세움ON(溫)**: 위기수용자 자녀 통합지원센터 ‘세움온’은 지역사회 안에서 수용자 자녀를 더 가까이 더 깊게 만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출발 당시 지역권역센터(경상, 충청, 전라) 구축을 목표 삼았으며, 현재 경상권과 충청권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자문단**: 세움 안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된 수용자 자녀 당사자 모임입니다. 수용자 자녀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제 네트워크**: 세움은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용자 자녀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NCCIP), 유럽 수용자 자녀 네트워크(Children of Prisoners, COPE), WOH(World Open Heart) 등 해외의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성과 (창립 시점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기준)

| 지원 유형 | 지원 횟수   | 내용   |
|-------|---------|--|
| 성장지원  | 13,534회 | 용돈, 교육비, 진로교육, 예체능 지원비                           |
| 긴급지원  | 1,873회  | 긴급생계비, 체납임대료, 체납공과금, 통신비, 이사비, 집수리비, 코로나 긴급생계비 외 |
| 물품지원  | 9,215회  | 아동 생일, 명절(설/추석), 입학/졸업,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어버이날, 초복 등  |
| 상담    | 3,553회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동작치료 등                         |
| 가족지원  | 1,508회  | 가족상담, 양육자교육, 가족여행, 출소가족지원 등                      |
| 청소년활동 | 840회    | 청소년 동아리, 찾아가는 멘토링, 당사자 자문단 등                     |
| 면회지원  | 1,175회  | 면회비 지원, 동행면회 등                                   |

## 2024 IMPACT REPORT

# 2

##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세움은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위기 수용자 자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도권 아동에게 밀도 높은 개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낙인과 숨김의 특성으로 인해  
발굴조차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해 비대면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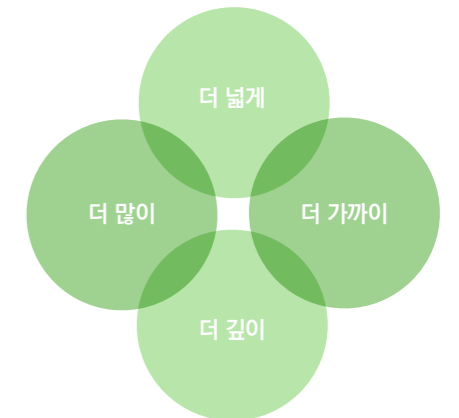
더 가까이,  
더 깊이

### 지역별 권역센터 설립 추진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아동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움 역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상지역 확대를 고민하던 시점에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모형을 실험하고, 현지 거점기관으로서 지역협력 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역적 한계를 넘도록 '더 많이, 더 넓게, 더 가까이, 더 깊게 만난다'는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과 2023년 경상권과 충청권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지역 안에서 조기에 발굴하고, 정기적인 대면 상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밀도 높은 개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국 4개 지방교정청과 협력하여 권역별 통합지원체계인 '세움ON'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각 권역 내에서 보다 여러 협력주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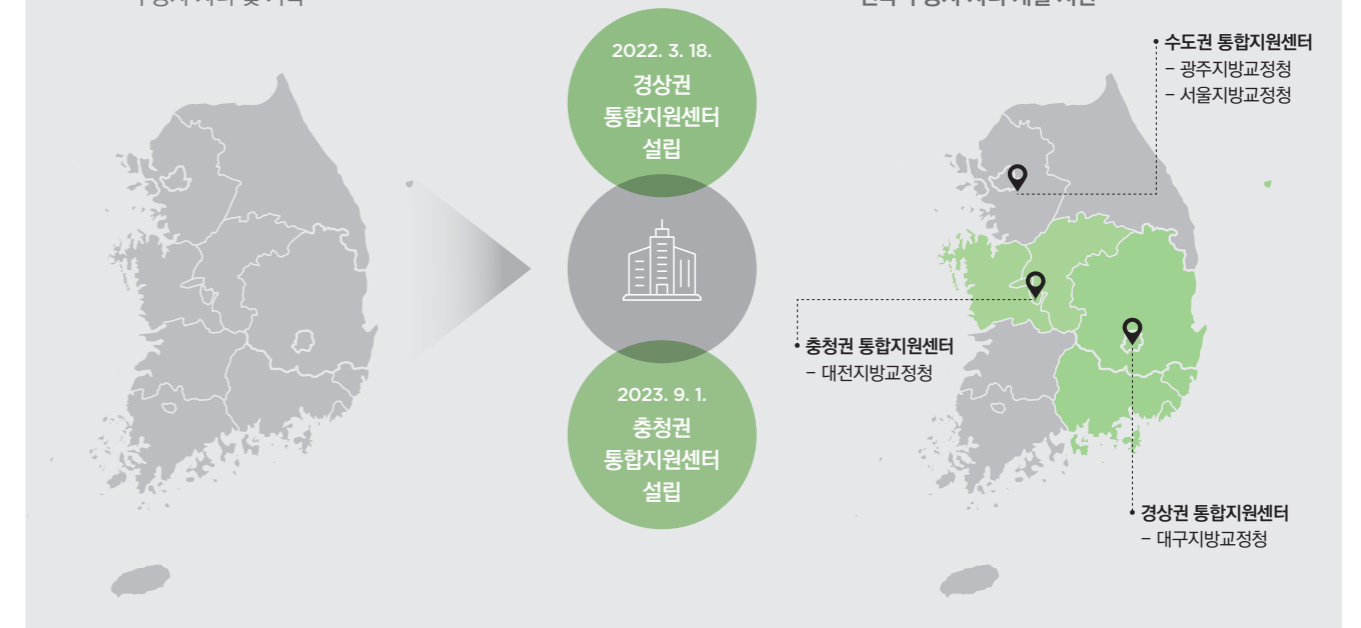


### 수도권 통합지원센터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도권 거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세움ON 구축

전국 4개 지방교정청과 협력하여  
전국 수용자 자녀 개별 지원



더 많이,  
더 넓게

### 지원체계 접근성과 비대면 소통 기반 강화

세움에서 진행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미성년 수용자 자녀 수는 약 5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해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의 탐지와 개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Invisible Children'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 자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접근성과 비대면 소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2024 IMPACT REPORT

# 3

가능성에서 현실로:

##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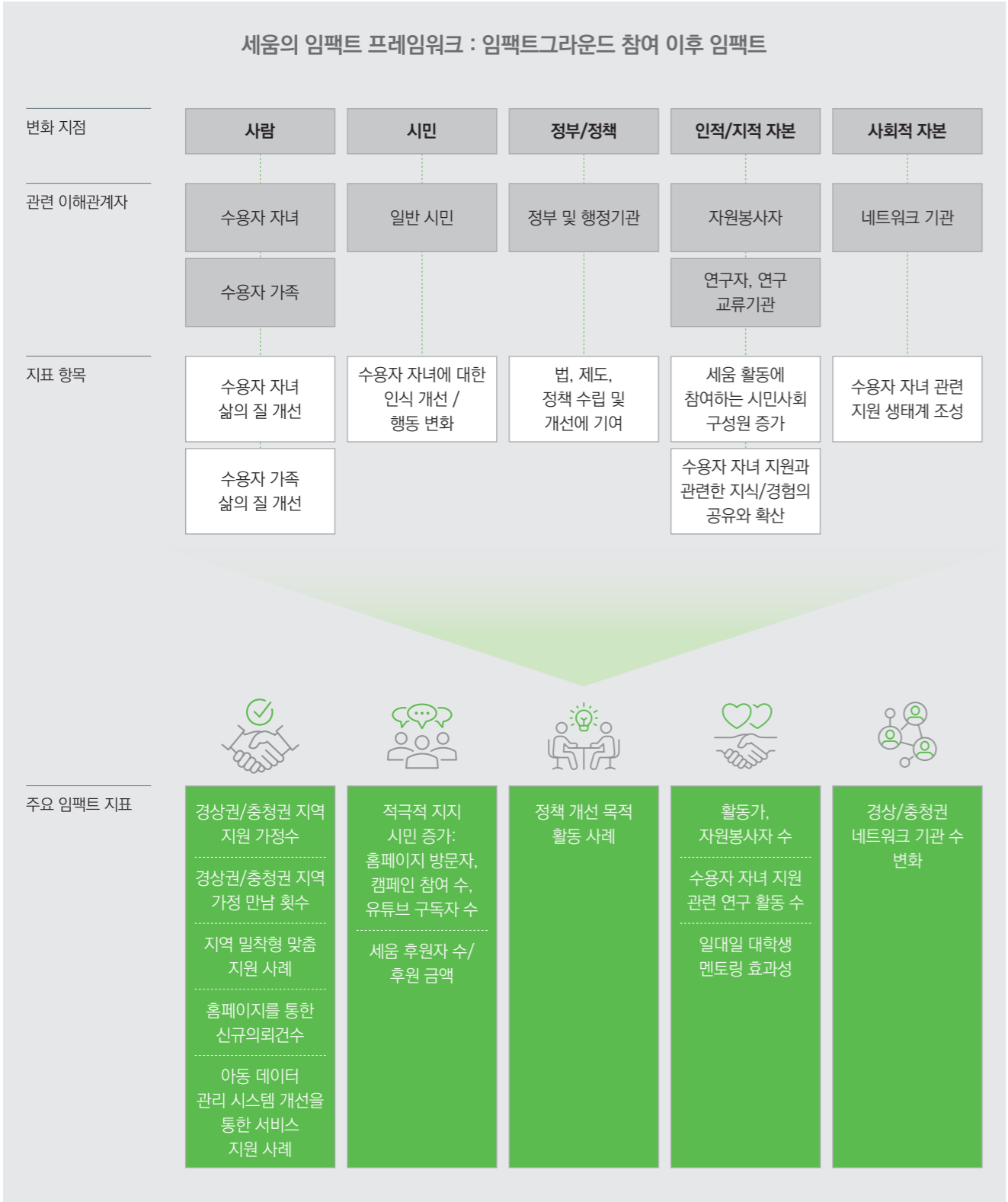
세움은 권역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높여 지원자를 직접 발굴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플랫폼(CRM) 구축으로 사례 대응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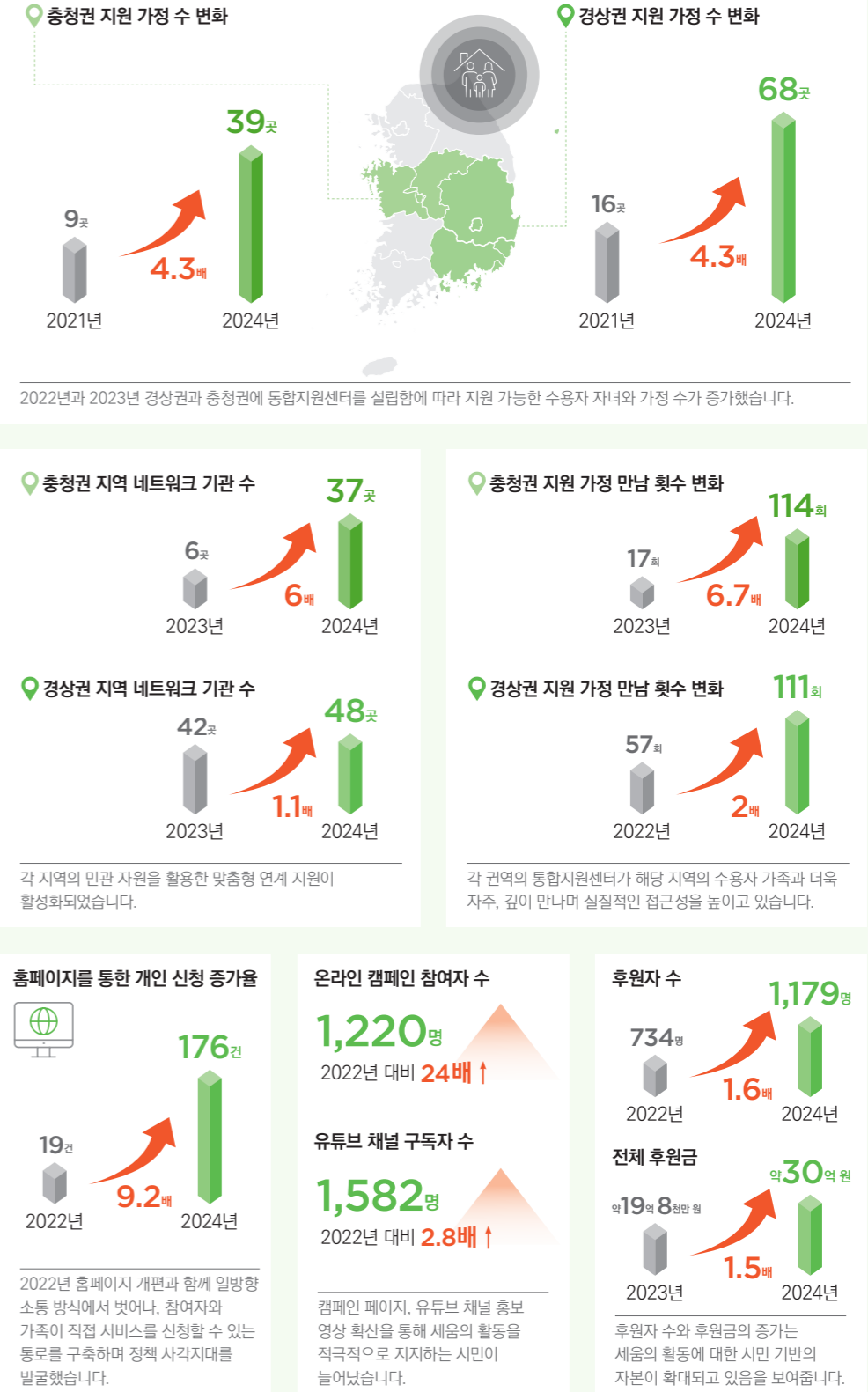
또한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시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후, 세움의 주요 임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팩트 하이라이트



## 임팩트 1. 권역센터 지역 지원대상 및 맞춤형 지원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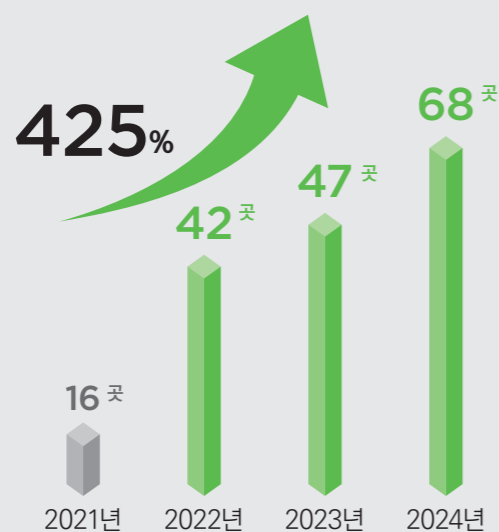
### 지원대상 확대

경상권 및 충청권 각 권역센터의 출범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가정 수와 가정 만남 횟수를 대폭 상승시키는 등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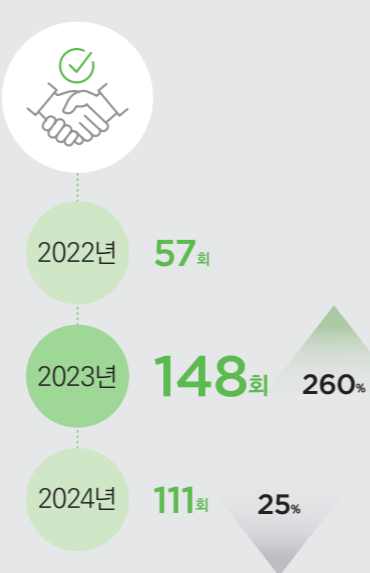
####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지원 규모 변화

##### 경상권 지원 가정수 변화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후(2022.03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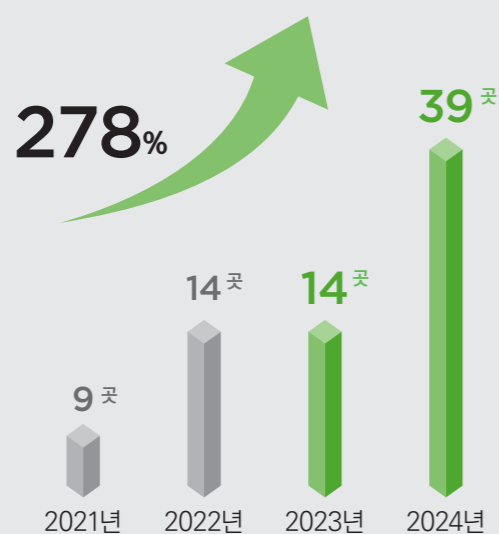
##### 경상권 지원 가정 만남 횟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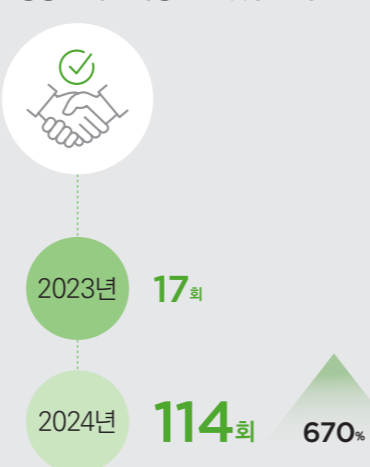
####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지원 규모 변화

##### 충청권 지원 가정수 변화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후(2023.9 이후)



##### 경상권 지원 가정 만남 횟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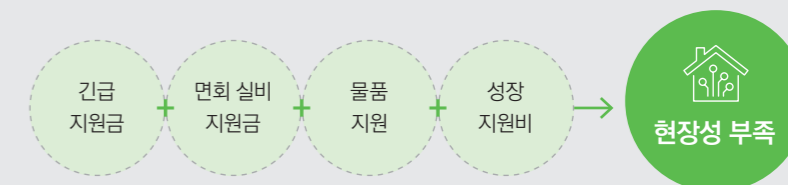


### 밀착형 지원으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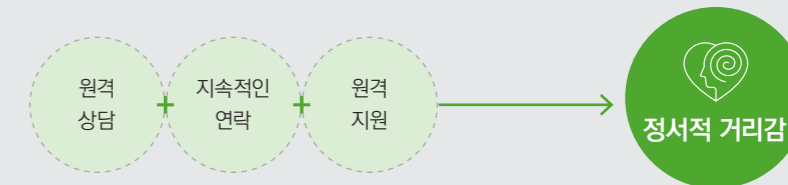
권역센터가 설립되면서 지원 대상 규모 확대 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중고등학생 연령의 수용자 자녀가 다수라는 특성을 확인하고 해당 연령층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까지 지방의 경우 원격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에 머물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밀착 대응하는 형태로 지원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대면 만남과 정기적 접촉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신뢰 기반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 수도권 본부 관할 당시 지역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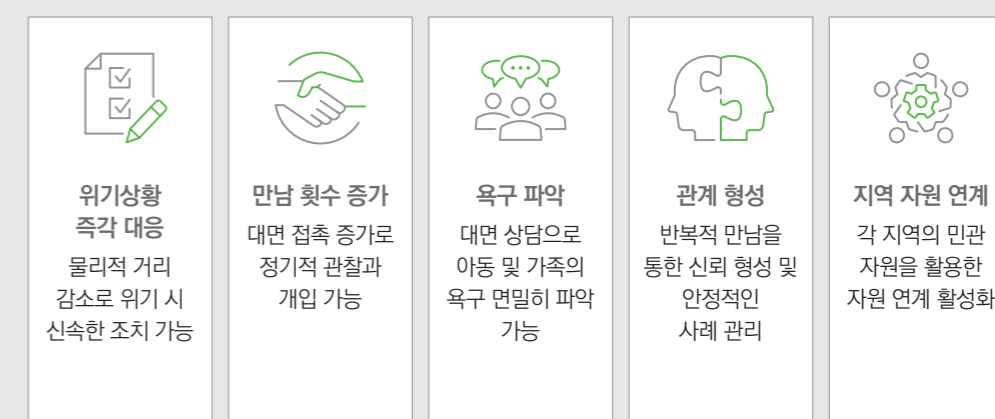
##### 현금성 지원 중심



##### 원격 상담과 연락을 통한 지원



#### 지역센터 설립 이후 지역권 지원



## 지원 사례로 보는 변화

경상권 거주 수용자 자녀인 '유정(가명)'과 충청권 거주 수용자 자녀 '해미(가명)'의 사례는 권역별 센터 구축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권역센터 개소 이후, 수도권 중심의 지원의 한계를 넘어 대면 접촉이 가능해짐에 따라 두 사례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유정은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타 지역의 대학 진학에 성공했으며, 해미는 감정 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어 가족의 참여와 협조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역 밀착형 지원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경상권역센터  
유정(가명) 사례

|                    |   |
|--------------------|---|
| 기존 수도권 본부<br>관할 당시 | "유정이는 위기 집중 관리가 필요했던 사례로, 재혼가정이었으며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한 상태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br>"그러나 수도권 담당자가 유정이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려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박 이상의 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문 횟수에 제한이 있었고, 주로 원격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권역센터<br>사례관리 이후    | "담당자는 매달 1~2회씩 방문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정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계속 찾아와 준다'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증가로 인해 유정이의 욕구와 필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춘 자원 연계가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 당사자 및<br>가정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기주도성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 한동대와 함께 진행한 &lt;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1기&gt; 참여</li><li>- 원래는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직접 다른 지역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요청할 정도로 변화함</li></ul></li><li>• 학업성취도 상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리 상담 및 ADHD 검사와 치료 지원</li><li>- 고등학교 시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면서 좋은 성적으로 국립대 진학</li></ul></li><li>• 가족 상황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정의 어머니 역시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정의 변화와 성장 덕분에 심리적 안정이 찾아옴. 현재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상태</li></ul></li></ul> |

충청권역센터  
해미(가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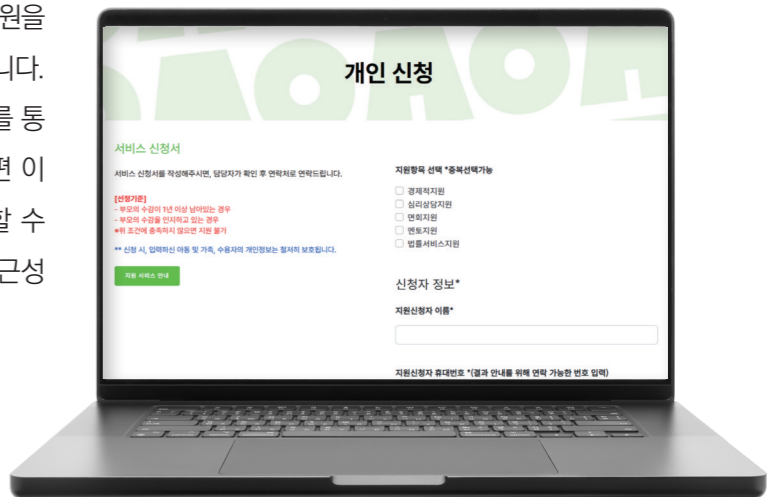
|                    |  |
|--------------------|--|
| 기존 수도권 본부<br>관할 당시 | "해미는 본부에서 수년간 지원을 받았던 사례로, 어머니의 수감 후 단둘이 함께 생활하던 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단절이 심했으며, 장애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br>"본부와 해미가 거주하는 지역 간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는 전화상으로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해미와 가족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 권역센터<br>사례관리 이후    | "자주 만남을 가지며 해미에게 적합한 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미에게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해미는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기 때문에, 대학생 멘토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 관리자는 한 달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해미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멘토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미가 점진적으로 외부와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
| 당사자 및<br>가정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계 형성 능력의 변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타인과의 관계 형성능력 개선</li><li>-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li></ul></li><li>• 자기주도성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li><li>-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 주도적인 성격으로 변화</li></ul></li><li>• 가족 상황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할머니도 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li><li>- 충청권 센터에서 개최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열린 태도를 보임</li></ul></li></ul> |

## 임팩트 2. 지원체계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원자 직접 발굴 확대

수용자 자녀와 가족은 심리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초기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세움은 조직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향 지원방식을 넘어, 신청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해 위기 가정을 더욱 신속하고 세밀하게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세움은 2022년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교정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 의뢰가 진행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지원 희망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면서 지원체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움 홈페이지(iseum.or.kr)의  
직접 신청 화면 갈무리



세움 서비스 신청자 발굴  
경로 변화추이



그 결과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의 직접 신청 건수는 2022년 19건에서 2024년 176건으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전체 신규 의뢰의 61%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접수 경로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존 지원기관이 닿지 못하고 있던 정책 사각지대의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교정청과 유관기관 역시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의뢰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세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팩트 3.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플랫폼 (CRM) 개발을 통한 사례대응 효율성 향상

세움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 특화된 정보관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기관들이 사용하는 결연아동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제한적인 관리항목, 데이터 분절, 홈페이지와의 연동 불가 등 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세움은 자체 CRM(Child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례 정보의 통합 관리, 홈페이지 신청 연동, 자동 배정, 실적 분석 기능 등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수용자 자녀 개인별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례 대응의 효율성과 정밀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 기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한계                            | 개선 항목    | 신규 CRM 시스템                                |
|--|----------|---|
| 타사의 결연 아동 관리 시스템 활용                          | 시스템      | 세움 자체 CRM 시스템                             |
| 교정기관 정보, 수감 정보, 양육자 정보 등 필수 항목 부재            | 관리 항목    | '수용자 자녀' 상황에 최적화                          |
| 데이터 분절성(추천서, 명단, 지원내역, 상담 일시 등 각각 별도 파일로 관리) | 관리 방법    | 데이터 통합<br>(개별 대상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 |
| 홈페이지 기능과 별도 관리                               | 홈페이지 연동성 |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례 자동 배정                  |
| 사례관리 실적 수동 집계                                | 사업 실적 관리 |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사업 실적 분석 및 추출 실시간 가능          |

### 임팩트 4.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시민인식 확산

#### 시민과의 소통 경로 다양화 및 시민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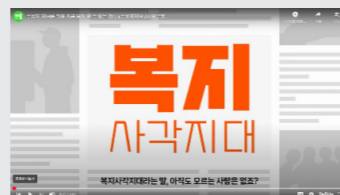
세움은 홈페이지 개편 및 리브랜딩을 통해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시민 관심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용률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진행된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 수는 2023년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153명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1,22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개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 적극적 지지 시민의 증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서명운동의 참여 문턱이 낮아지며, 시민들의 서명운동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3세 이상 수용자 자녀의 돌봄접견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서명 캠페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촉구 서명 캠페인>에 시민들의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페이지 구축, 유튜브 홍보 영상 확산을 통해서도 시민 인식 개선을 도려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 캠페인



세움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의 수용자 자녀를 위한 맞춤형 자원과 제도적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아동의 권리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총 참여자 수 | **993명** (온라인 참여 723명, 오프라인 참여 270명)



캠페인 영상 조회 **486회**

### 13세 이상 수용자 자녀 돌봄접견권 서명 캠페인

2024년 1월~12월까지 13세 나이제한으로 인한 돌봄접견 제약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의 접견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 참여자 수 | **1,157명**  
(온라인 참여 733명, 서면 참여 4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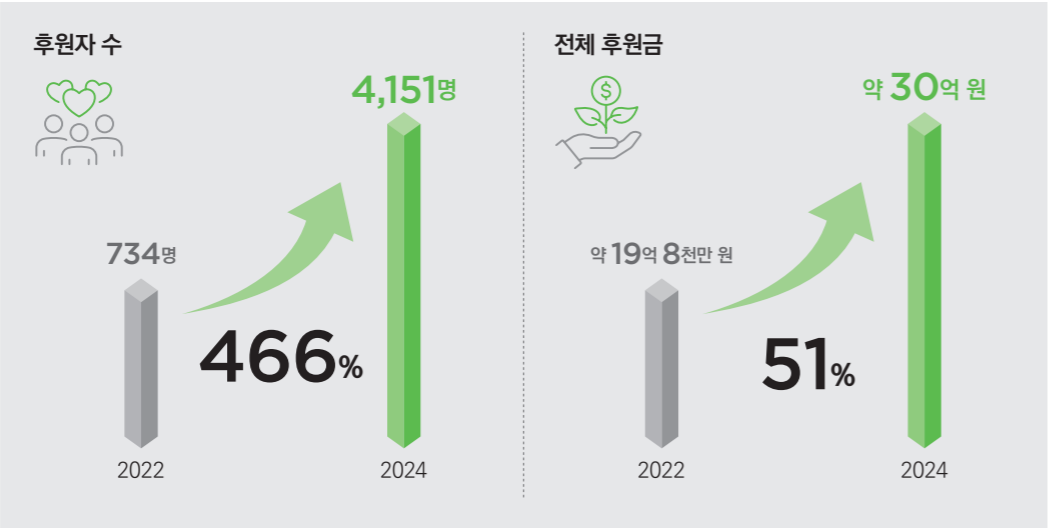
## 수용자 자녀 지원관련 콘텐츠 제작과 시민 반응 견인

2022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이 본격화되며 소통 채널이 다각화되고, 시민 관심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84편의 영상이 제작되었고, 구독자는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582명을, 연간 조회 수는 200% 증가한 62,140회를 기록했습니다.



관심과 지지의 실천, 세움후원자 62% 증가

정기적인 관심과 지지를 실천하는 후원자들은 세움의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연대망의 핵심 주체입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기간 동안 후원자는 약 466% 가량 증가했으며 후원금 규모도 51%가량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기여를 넘어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시민 기반의 자본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022  |                | 2023  |                | 2024  |                |
|-------|----------------|-------|----------------|-------|----------------|
| 개인후원자 | 734명           | 개인후원자 | 1,158명         | 개인후원자 | 4,151명         |
| 단체후원자 | 89단체           | 단체후원자 | 105단체          | 단체후원자 | 105단체          |
| 총 후원금 | 1,985,930,016원 | 총 후원금 | 2,046,383,556원 | 총 후원금 | 3,007,591,900원 |

임팩트 5.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세움은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부처의 아동복지 담당자들과 법률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연도        | 세움의 정책관련 활동   | 정책관련 변화 성과   |
|-----------|---|--|
| 2015-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동복지와 아동인권 관점에서 수용자 아동과 가족 지원 시작</li><li>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최초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진행</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근거로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자 정책토론회 개최</li></ul>  |
| 2018-20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용자 자녀 면접권과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 지원 대책 질의</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법무부 장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대책 세우겠다고 답변함</li><li>수용자 자녀 면접권,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개정</li><li>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세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법원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권고</li><li>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권고</li></ul> |
| 202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용자 자녀 면접권,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개정</li><li>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 교정본부장) 발족</li></ul>   |
| 2021-20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부산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업무협약체결, 부모의 구속초기 수용자 자녀 지원 시스템 마련</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법무부 서울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 시범 운영</li><li>법무부 위기수용자 자녀 지원팀 4개 지방 교정청으로 확대 운영</li><li>전국 54개 교도소 중 48개소에 가족접견실 설치운영 및 법개정</li></ul>  |
| 2023-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정책 간담회 개최</li><li>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li><li>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 발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 한정에 의원실에서 재발의,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실과 논의와 협업</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정에 의원,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li></ul>   |
| 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 및 논의 참여</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용자자녀 규정 신설</li><li>소장이 미성년자 접견을 위한 지원 가능</li><li>수용자의 교정시설을 결정한 경우 수용자자녀 주거지 참작</li></ul></li></ul>  |



임팩트 6.  
수용자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보

인적 자본: 힘이 되는 연결, 대학생 멘토 및 자원봉사자 확보



1) 대학생 일대일 멘토사업 운영체계 구축

1:1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상권과 충청권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적 자원 연계 사례입니다. 수용자 자녀와 지역 대학생을 1:1로 연결하여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월 1회 정기 활동을 진행하며, 여름캠프와 종결 활동까지 연간 7~9회의 만남을 지원합니다. 멘토와 나눈 경험을 토대로 쌓은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대학생 멘토링 협력 대학

|  |  |
|--|--|
|  한동대학교(포항)  | 한동대학교의 경우, 학내 학회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여 이후 1기 참여멘토들이 중심이 되어 후속 멘토를 자체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계 지속   |
|  고신대학교(부산) | 사회복지학과 교수진을 통해 멘토로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진행  |
| 참여 현황  | <div>• 인원: 청소년 참가자 17명, 대학생 멘토 17명(총 34명)</div> <div>• 시행 기간: 2022년~현재</div> <div>• 멘토링 횟수: 총 114회</div> <div>(2022년~2024년 기준)</div> |

충청권 통합지원센터 협력 대학

|   |  |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대전) |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MOU 체결<br>멘토링 이후 학과 후원, 대학생 봉사자 협업 가족 캠프 등 추가적인 협력이 이어짐                                     |
|  한남대학교(대전)     |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교수의 멘토 추천과 모집 진행  |
| 참여 현황   | <div>• 인원: 청소년 참가자 5명, 대학생 멘토 5명(총 10명 참여)</div> <div>• 시행 기간: 2024년~현재</div> <div>• 멘토링 횟수: 총 34회</di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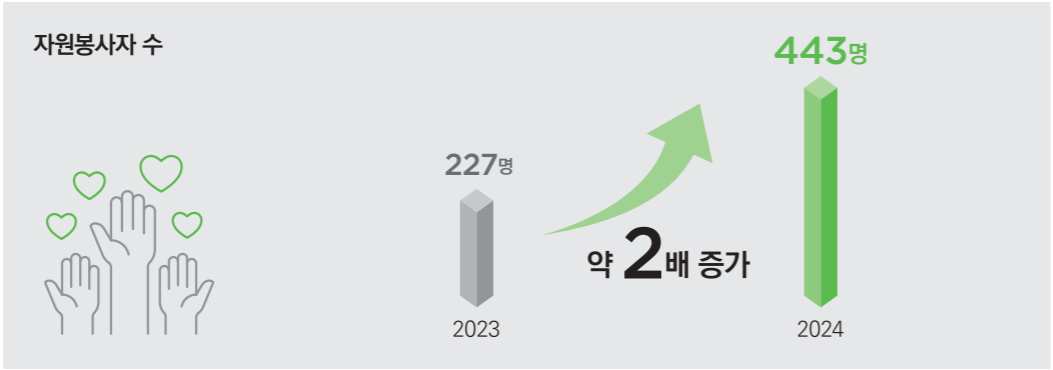
2)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결과, 수용자 자녀인 멘티들은 주체성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 두려움을 완화하는 등 정서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소통 역량과 성찰, 책임감 등 개인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   |
|------------------------------|---|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br>효과성 연구 개요    | <div>• 연구명: 수용자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div> <div>• 연구자: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홍진주(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br/>이지선(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div> <div>• 연구 대상: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div> <div>• 멘티: 충청권 청소년 5명, 경상권 청소년 3명</div> <div>• 멘토: 대학생 8명</div> <div>• 연구 방법: 프로그램 초기와 종결 시점 개별 대면/비대면 면접 실시</div>   |
| 연구결과 1.<br>멘티(수용자 자녀)의<br>변화 | <div>• <b>주체성 강화</b><br/>“예전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잘 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약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div> <div>• <b>자신감 회복</b><br/>“멘토님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얻고 좀 뭐라 해야 되지... 편하게 얘기해 제 자신이 좀 바뀐 것 같아 가지고...”</div> <div>• <b>대인관계의 변화</b><br/>“약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자체를 싫어했었는데 이런 멘토링 활동을 하고 나서 약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div>                                  |
| 연구결과 2.<br>멘토(대학생의 변화)       | <div>• <b>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b><br/>“보통 이제 가정의 어려움이 좀 클 수도 있을 텐데 티 내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이 보통 다른 평범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굳세고 참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br/>“세움 멘토링 아니었으면 이런 아이들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멘토링을 계기로 제가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div> <div>• <b>의사소통 역량 향상</b><br/>“저의 성장을 말하면,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활동마다 제 욕구가 아니라 그 초점이 멘티에 가 있잖아요. 멘티의 욕구에 먼저...”</div> |

3) 세움 자원봉사자 증가

세움의 자원봉사자 수 증가는 수용자 자녀들이 사회적 낙인과 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용자 자녀들의 인적 자본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자본: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정책연구/실증연구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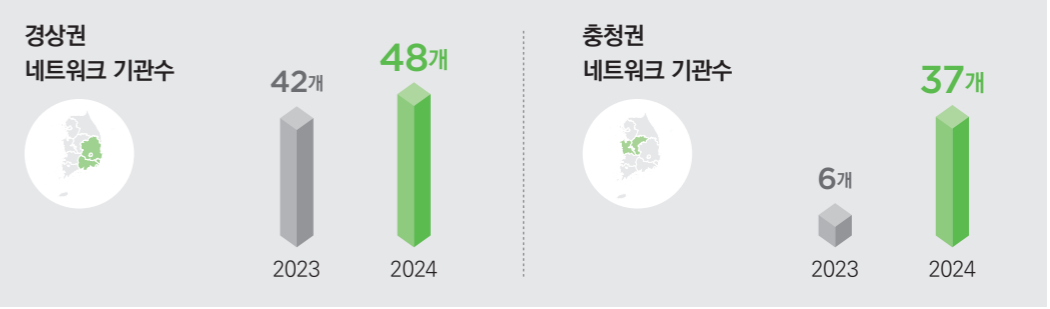
수용자 자녀 지원의 실천 현장에서 쌓인 지식과 경험,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노하우는 개별 사례를 넘어서 공공 자산으로서의 지적 자본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세움은 이러한 자산을 구조화하고, 연구·교육·정책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와 확산을 시도하며 지식 기반의 지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은 곧 현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 발간 연도 | 연구명                                 | 연구자           | 연구 내용   | 등재기관                           |
|-------|-------------------------------------|---------------|---|--------------------------------|
| 2023  |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이지선           | 위기 수용자 자녀들이 찾아가는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변화,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질적 연구                               | 세움 연구소 자료집                     |
| 2024  | 수용자 자녀의 자전적 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 이지선, 전명희, 최려나 | 22년 발행된 '어둠 속에서 살아남다' 당사자 참여자들이 쓴 책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회복과정과 사용된 전략을 연구                               | SSRN Children & Youth services |
|       | 수용자 배우자의 영유아 자녀 양육 경험 연구            | 오혜정           | 배우자 수감 후 혼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수용자의 배우자를 심층 면접하여 양육의 어려움과 문제, 육구 파악 후 영유아 자녀양육가정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 모색 | KCI 한국아동권리학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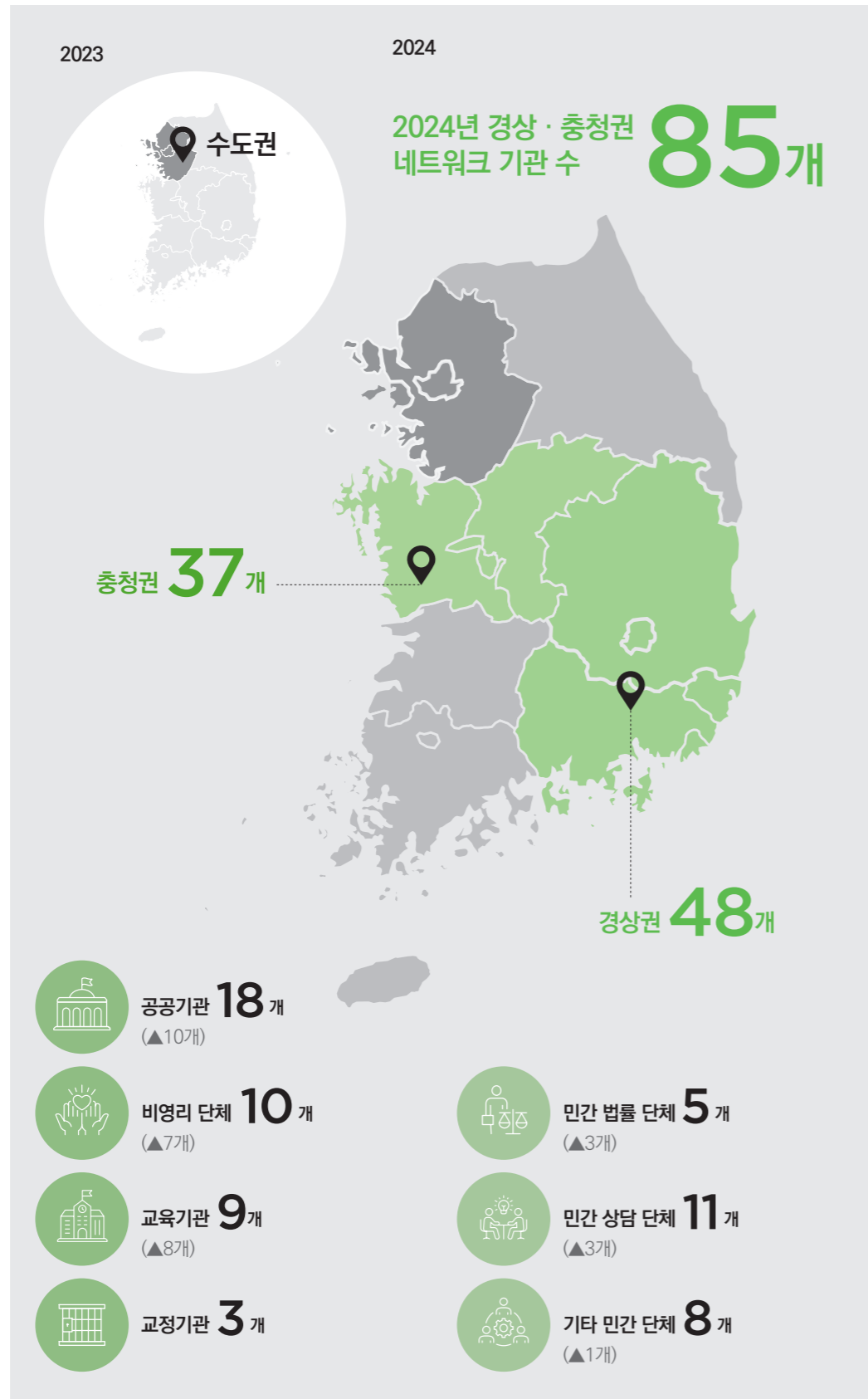
| 발간 연도 | 연구명  | 연구자                | 연구 내용   | 등재기관                             |
|-------|--|--------------------|---|----------------------------------|
| 2024  |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배영미, 이지선, 허은영      | 부모의 수감으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아동 단독세대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 ISSN 2288-879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 이지선, 최려나, 허은영      |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제안                                  | KCI 등재 사회과학연구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
| 2025  |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연구                           | 이지선, 배영미, 전규해, 전민경 | 해외 및 국내의 법률 조례 조사 분석, 해외 및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 내용 및 공적체계와의 협업 사례 연구, 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세움 연구소 아카이브                      |
|       |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통합적 개별지원 슈퍼비전 연구                        | 배영미                | 세움의 통합적개별지원 아동의 육구 및 이슈와 통합적개별지원 과정 및 슈퍼비전 이슈 분석                                | 세움 연구소 아카이브                      |
|       | 수용자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                   | 권지성, 홍진주, 이지선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와 멘토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과정, 성과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                        | 세움 연구소 아카이브                      |

사회자본: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기관 증가

세움의 활동 기반이 확장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확보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역 협력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며, 세움은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구조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움은 경상/충청권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상권은 48개, 충청권은 37개 기관과 협력 중이며, 이는 경상권의 경우 1.14배, 충청권의 경우 6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률·상담·비영리·교육기관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폭넓게 이루어져 세움의 사회적 자본이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충청권  
네트워크 기관 수



## 2024 IMPACT REPORT

#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지역 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 구축

세움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사옥을 확보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환대하는 복합열림공간이자 세움의 장기적 계획 수립, 전문 인력 고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공간입니다. 특히 새 사옥 마련은 단순한 건물 확보를 넘어, 세움이 스스로의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 자립의 출발점이자, 지역사회와 협력 생태계를 확장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세움은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통해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며 전국적 확산과 구조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넘어 경상권·충청권에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마련한 세움 사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수용자 자녀 지원의 지속성과 자립 기반을 상징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직원과 자원활동가, 지역 파트너가 함께 협력하며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과 CRM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원자 발굴과 사례 관리를 효율화하고, 지역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시민 대상 온라인 캠페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용자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책 개선과 지역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Vision for the Future

세움 비전

2530

|   |   |  |   |
|---|---|--|---|
| 전략목표 1  | 전략목표 2  | 전략목표 3   | 전략목표 4  |
|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참여 확대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  | 수용자 자녀와 가족의 인권옹호   |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 환경 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합적 개별지원 강화</li><li>• 당사자 기획 프로그램 실시 및 활동가 육성</li><li>• 양육자 자조모임 운영</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의 확대 운영</li><li>• 양육자 교육 활성화</li><li>• 수용자 자녀 조사연구 강화</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용자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 개선</li><li>• 수용자 자녀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모니터링</li><li>• 수용자 자녀 인권침해 법률 지원</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권역통합지원센터 안정적 운영</li><li>• 세움멘토 및 자원봉사자 참여기회 확대</li><li>•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li></ul> |

세움 다움

기쁨의 사람, 투지의 사람, 용기의 사람, 투사의 사람, 공감의 사람

세움(인)의 일하는 방식



- 본질은 남기고 익숙함에 질문을 던진다
- 도전은 물을 뿌릴 뿐 실패를 묻지 않는다
- 즐거움의 스위치를 켜면 "잘한다", "자란다"
- 우리가 멈추면 세움 아이들의 성장이 멈춘다

